

정직을 통한 신뢰성 증진운동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회원소식지 2007

01+02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 | 우창록 (이사장)
 강영안 권장희 김낙춘 김남호
 김동호 김영일 김은호 김일수
 김장환 김홍섭 박상은 방선거
 백종국 송인수 신국원 신민범
 윤수정 이국주 이외용 이장규
 전재중 정현구 조흥식 주광순
 최태연

감사
 김정숙 김중환

공동대표
 강영안 김동호 김일수

사무총장
 양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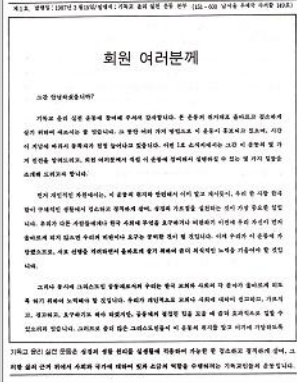
사무처
 안금주 (부장) 조제호 (부장)
 윤성웅 (간사) 최옥준 (간사)
 김경주 (협동간사)
 윤나래 (협동간사)

지역기운실
 광주 대구 부산 안동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진주 청주 LA 워싱턴

협력단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
 연대 교회문화연구소 기독교변조사
 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도 직장사역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7년 01+02월호
동권 203호
 소재지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층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cemk.org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우창록 **발행일** 2007. 2. 1
편집인 양세진 **편집** 조제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소식



1987년 3월 15일 제1호 소식지
 1호 소식지를 아직 보관하고
 계신 회원님이 계신가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2007년 01+02월호

- 03 Vision Letter 희망의 편지
-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 04 Trust Initiative 신뢰의 가치
- 기윤실 2020 비전
 - 정직을 통한 신뢰성 증진운동
- 08 Mission Bank 생활신앙실천백서
- 13월의 보너스는 기부금으로
 - 연말정산 현금금의 아름다운 변신
- 10 Monthly Report 활동보고
- 11 Financial Report 회계보고
- 14 CEMK 20th Anniversary 기윤실
 창립 20주년
 기윤실 헌신회원 초청 감사의 밤
- 16 광고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글_강영안 | 공동대표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만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새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던 바르트나 본회퍼는 ‘종교’란 말을 떼고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 사회적 관습을 준수하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며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윤리를 배제하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너희는 빛이라”는 서술 다음, 곧장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착함’이란 곧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을 떠올리면 아마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정당함, 공정함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모든 일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진실함’이란 그야말로 숨김이나 감춤이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남입니다.

생명은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기독교를 ‘생명’이요, ‘생명’의 종교라 말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그 열매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착함은. 요즘. 말로. 책임이고. 의로움은. 정의, 진실함은. 정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실. 운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책임지고. 선을. 베풀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정직. 하고. 공정하고.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과.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전하는 복음도 진실된 것으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의 생명이 싱싱하게 살아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 본 칼럼은 지난 1월 23일 발송된 뉴스레터 44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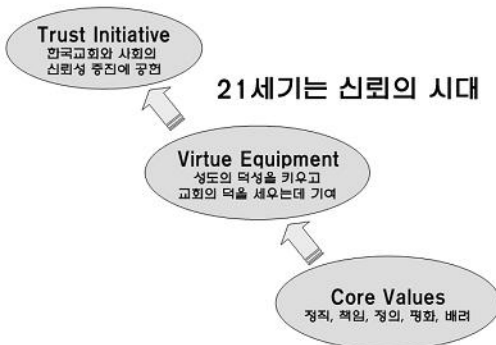
기윤실 2020 비전 - 정직을 통한 신뢰성 증진운동

글_양세진 |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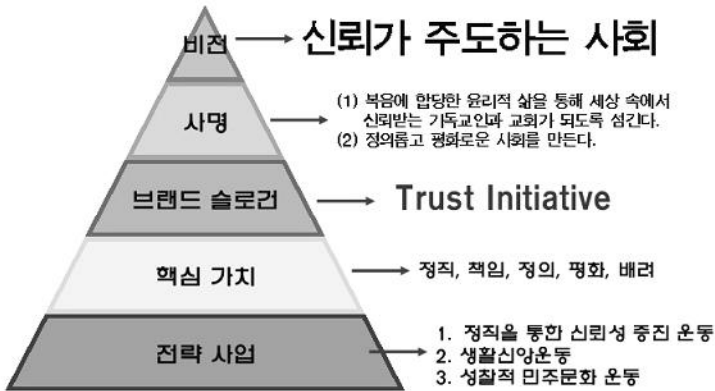
기윤실은 20년 전 민주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1987년 12월 성경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기윤실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은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체제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기윤실은 일반역사와 구속역사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2007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향후 20년을 전망하며 2020 비전과 사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이사장,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전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통해서 기윤실이 그동안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온 역사적 사명이 과연 새로운 20년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 물음을 던지며, 2020년에 기윤실은 어떤 모습으로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정립하고 핵심 사업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하나님께서 기윤실에게 향후 20년은 이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시지는 않고 있지만, 그 희미한 가운데서도 교회와 사회가 정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정직을 통한 신뢰성 증진운동'이 현재까지 정리된 기윤실 2020 비전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 2020 비전 & 가치 체계도



2월 26일(월) 오후 7시 30분, 숭실대 베어드홀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기윤실 2020 비전선포식”에 오시면 기윤실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다 분명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기윤실을 20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20년도 신실하게 인도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기윤실을 흥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며, 기윤실을 쇠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다만 저희들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그 비전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기윤실이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릴 뿐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20년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윤실을 위해 헌신하고 후원해 오셨던 모든 회원, 후원교회, 지역기윤실의 모든 동역자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卍

기운실의 전략사업



정직을 통한 신뢰성증진운동

- (1) 교회 신뢰성 증진운동(신뢰 지표개발, 교육, 컨설팅 지원 등)
- (2) 시민사회 신뢰성 증진운동 (NGO 사회적 책임운동)
- (3) Trust Initiative Report 발행(주간 발행 이메일)

평양대부흥 100주년인 올해,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도 조사와 각종 통계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오늘날 개신교의 상황은 위기라 하겠습니까.

다시 건강한 교회의 이상과 비전을 공유하고 본질에 충실해야할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운영의 책임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나갈 때 다시 개신교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운실은 한국교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연구조사 및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생활신앙운동

- (1) 미션 뱅크(Mission Bank)를 통해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섬김(양방향 소통적으로 운영)
- (2) 회원 교회와 지역 방문 모임(기운실이 찾아갑니다)
- (3) 정직신뢰 성경공부 모임운영
- (4) 정직이 이끄는 30일 캠페인 운동
- (5) 목회자 정직·신뢰 설교자료 제공

기운실 운동이 거시적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을 전개한다면, 미시적으로는 성도 개인 개인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신앙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생활신앙운동은 신앙인으로서, 기운실 회원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실천은 단순한 도덕지침을 넘어, 사회의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책임의식으로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직이 이끄는 30일 캠페인(가칭)'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생활신앙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개인에게는 미션 뱅크(Mission Bank)를 통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원함으로써 기운실 운동이 회원 한분 한분의 삶 가운데 실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찰적 민주문화운동



- (1) 기독교윤리아카데미 - 기독교윤리연구소와 협력사업
- (2) 여성리더십아카데미(여성성경공부모임, 여성리더십캠프, 여성리더십아카데미)
- (3) NGO 실무자 역량강화 - 공익혁신 아카데미
(Public Value Innovation Academy)
- (4) 신뢰포럼

이제 우리사회는 성숙한 민주시민과 건강한 시민사회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대립과 반목의 문화는 대화와 타협, 이해와 존중의 훈련으로 극복되어야 하고 이는 민주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무엇보다도 '성찰의 장'이 확보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 생활세계의 중심에 선 여성들의 성찰적 훈련과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윤실은 이들을 대상으로 토론과 민주시민교육에 기반 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기독교인의 가치관 정립을 요하는 중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숙고하는 '신뢰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여성리더십운동은 2007년 기윤실에서 처음 시작하는 운동으로 목표하는 바는 첫째,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공부 교재를 제작, 보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여성이 제자로서의 삶을 발견하고, 사회와 교회에서 바람직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여성리더십 캠프」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실현하려고 합니다.

기윤실 전략 사업 흐름도



정직을 통한 신뢰성 증진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의
신뢰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이 일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신앙운동과 성찰적 민주문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3월의 보너스는 기부금으로

- 연말정산 환급금의 아름다운 변신

글_ 조제호 | 부장



출처: 연말뉴스

봉급쟁이는 봉이란 소리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어느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적게는 몇 백만원, 많게는 몇 억원을 탈세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월급에서 꼬박 꼬박 떼어 가는 세금 한푼이 아쉬운 봉급쟁이에게는 열 받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꼬박 꼬박 떼이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연말정산은 봉급쟁이들에게는 기다려지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생각지 못한 보너스(보통 1월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에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에서 시민 883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어떻게 쓰셨나요?"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별로 받은 게 없어서 티도 안 났다'라는 답변이 전체 21.2%(187명)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알뜰하게 저축했다 17.1%(151명) ▲카드값이나 빚을 갚았다 16.5%(146명) ▲비자금을 조성했다 14.7%(130명)의 답변이 있었으며, '오히려 돈을 더 냈다'는 답도 13.8%나 있었다고 합니다. 기타 답변으로는 '여행, 유흥이나 쇼핑했다'(8.6%), '배우자나 부모님께 드렸다'(8.0%)가 있었다고 합니다.(데이터뉴스 2005년 12월 28일자)

여러분은 13월 보너스 -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의 조사처럼 '오히려 돈을 더 내실' 분은 제외하더라도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는 것인데...'라는 소극적인 생각 말고, 적극적으로 13월의 보너스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미션뱅크 실천지침

1. 환급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신 분

- 비영리기관에 1년 이상 정기후원을 신청한다.(또는, 후원금을 증액한다)
- 2.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신 분
 - 지금 시기에 적합한 단회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모금에 동참한다.

실천합시다

1. 월 2만원이면 해외 어린이 1명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비용을 후원할 수 있다.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 문의)
1. 새학기가 되면 양복보다 비싼 교복값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 주위의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나눔으로 짓는 교복연가'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 2월 구정에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 중 일부를 후원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미션뱅크 운영방안

- 은행계좌의 개념을 도입 처음 50개의 실천아이템을 절기, 기념일 중심으로 분류 기본 예치(제공)한다.
- 회원들이 실천아이템 중 본인이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을 선별 인출하거나, 직접 제안해서, 예금하도록 한다.
- 운동확산을 위해 월 1회 실천아이템 하나를 선정 온라인 웹진으로 구성, 발송한다.
- 50개의 기본 아이템 외에 월 20개 이상의 실천아이템을 매월 제공한다.
- 연말에 실천아이템을 정리하여 "Mission Bank-생활신앙실천백서"를 발간한다.

MBA를 아시나요?

- 미션뱅크 실천단(Mission Bank Actor/Actress) 모집

미션뱅크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미션뱅크에 실천항목을 예금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예금되어 있는 실천항목 중 정기적으로 출금하셔서 실천한 느낌, 소감 등을 나눠주시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미션뱅크가 꾸며질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는 역할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모집기간 : 2월 12일 ~ 3월 16일
- ❖ 모집방법 : 이메일 또는 전화 접수, 이메일 접수 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 ❖ 모집인원 : 40명 내외(연령별로 골고루 인배 되도록 구성 예정)
- ❖ 활동기간 : 2007년 3월 ~ 12월(10개월간)
- ❖ 활동의무 : 월 2회 자신에게 맞는 미션뱅크 실천 아이템을 실행한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 ❖ 활동특전 : MBA 임명장, 분기마다 오프라인 모임(특강, 교제, 분기별 활동에 따른 시상 등), 기윤실 프로그램 참여시 20% 할인
- ❖ 담당 : 조제호 부장

Monthly Report 활동보고



교 3 수험생의 기본으로...^^ _ 간사은리공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윤리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이해”라는 주제로
14명의 강사로부터 18번의 강의를 통해 간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의 목소리를 듣다 _ 2020 비전포럼

지난 11월 28일, 새로운 기윤실 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2020 비전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의 발제로는 김정수
대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선옥 교수(숭실대 철학과),
박병옥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세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회원의 목소리를 듣다 _ 포커스 그룹 인터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생활신앙운동으로서의 기윤실 운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난 12월 7일 이장규 이사실에서 몇몇
회원분들을 모시고, 생활신앙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2020 비전을 위한 지역기윤실 토론회

본부와 지역기윤실의 상생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11일 명동 청어람에서 있었습니다.



기윤실 헌신회원 초청 감사의 밤(12.12 청어람)

기윤실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다

지난 12월 15일 기윤실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19년 전
기윤실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헌신하였고,
지난 시간동안 수고하셨던 귀한 분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비전에 대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인 Founding Fathers Evening을
진행하였습니다.



간사 신년 워크숍

을 1월 2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간사
신년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윤실 2020 비전 콜라주(collage: 풀로 붙인다)’를
통해 기윤실의 2020 비전을 시각적으로 그려봄으로써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윤실의 비전세우기가
소망가운데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회계보고

❖ 지난 11+12월호 소식지의 휴간으로 인해
보고해 드리지 못한 8월~11월까지의
회계보고와 회비납부명단은 지면관계상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 입		지 출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I. 사업수익	24,506,000	I. 사업비용	25,296,883
1. 회비	11,509,000	1. 인건비	5,732,970
(1) 회원회비	10,165,000	2. 사무관리비	3,313,493
(2) 이사회비	1,129,000	3. 사업비	16,250,420
(3) 지역회비	215,000	가. 사업인건비	9,898,890
2. 일반후원금	11,597,000	나. 사업행사비	5,031,390
(1) 교회, 기관후원금	8,701,000	다. 교육훈련비	668,600
(2) 간사후원금	70,000	라. 지역사업비	651,540
(3) 현물후원금	2,826,000	II. 사업외비용	1,632,127
3. 사업수입	1,400,000		
II. 사업외수익	498,241		
수 입 계	25,004,241	지 출 계	26,929,010
당 기 감 소 액	1,924,769	당 기 증 가 액	0
총 계	26,929,010	총 계	26,929,010

❖ 기윤실 후원구좌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037-01-0504-979 | 우리은행 821-05-002520 | 농협 074-01-121183
우체국 012401-01-001137 | 기업은행 70-013538-01-022 | 제일은행 377-10-025628
신한은행 326-05-010678 | 하나은행 109-228746-00104 | 외환은행 144-13-05572-6
씨티은행 136-50810-258

❖ 간사 후원구좌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812-01-0115-671 | 지로번호 7530353

- 2006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영수증을 대신하여 입금내용을 실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착오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본부에서는 서울 및 미조직 지역 회비만 관리하므로 지역 회원께서는 각 지역 소식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금주 부장 070-7019-3756)



개인 후원금

(1전) 강동수 김광자 김범영 **(2전)**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정지연 **(3전)** 김대만 김소연 김연수 김영목 김원섭 김은이 명호중 문현주 박경희 박상희 방순영 손교식 손상일 신희선 원종민 원철 이주영 이진의 장연순 정영미 정유선 조인진 조진영 조현 **(4전)** 김진필 **(5전)** 강대용 강민창 강영수 강은영 강현주 고영준 고은상 고정호 공미자 구세정 국미나 권오재 김경손 김경숙 김경희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문정 김병욱 김상숙 김상운 김상은 김상환 김석돈 김선미 김선희 김성길 김성득 김송은 김영옥 김영철 김용미 김용호 김은지 김의선 김이수 김재균 김재명 김정민 김정현 김종호 김주열 김준영 김준철 김태정 김태훈 김하나 김한성 김해자 김혜경 김홍환 김효원 김희정 김희철 나영식 나현집 남재환 노승아 류기성 류중우 문경환 문정옥 박경숙 박기업 박명섭 박명숙 박미경 박민선 박수정 박신보 박영수 박윤정 박윤진 박재호 박정민 박정일 박종식 박지영(A) 박지영(B) 박춘님 박태순 박혜경 박환승 방세영 배진성 백경원 백인남 백지열 백혜림 범학식 변하순 서단비 서동진 서동천 서일향 서현주 서효정 석미경 성백경 손석진 송중영 송철학 신대희 신동립 신동일 신동필 신우현 신중기 신평은 양승원 양영식 양정식 엄현식 여신은 오명철 오미영 오상덕 원호용 유영근 유지성 유창수 유희경 윤미정 윤성우 윤승은 윤여송 윤영희 윤은경 윤해균 윤현희 이경옥 이경진 이계형 이광남 이금아 이기웅 이도홍 이동혁 이민지 이백경 이범석 이병삼 이상희 이석만 이수룡 이수환 이옥희 이웅아 이은성 이은자 이정민 이정희 (A) 이정희(B) 이종숙 이종연 이진영 이창미 이춘학 이필성 이해영 이혁재 이해경 이호정 이희열 임장우 임종완 임종호 장관 장상진 장준혁 전장덕 전진우 전희숙 정미옥 정미옥 정병선 정선우 정수덕 정승윤 정연희 정철모 정학영 정호정 제천모 조계봉 조계인 조성연 조아라 조영미 조영삼 조용환 조은경 조인형 조철현 지속자 지연심 천민우 최경구 최경석 최덕수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정철 최종원 최지영 최지원 하현주 하혜숙 한기채 한동화 한석환 함영희 한재량 허태훈 현평호 현하나 홍기룡 홍인선 홍정진 황병일 **(7전)** 신명호 안정신 유영신 이춘화 **(9전)** 이홍석 **(1만)** 강대현 강명길 강병관 강성일 강승철 강영실 강은경 강정호 강정훈 강준식 강진호 강철희 강현아 강형구 강호인 강흥구 강희철 고선옥 고승표 고정환 고지아 구에리 권민규 금은미 기세춘 기진호 김경천 김규동 김기수 김기현 김남희 김달수 김대인 김덕기 김동배 김동식 김동준 김동표 김동희 김두희 김명금 김명태 김문자 김미령 김미혜 김병일 김상식 김선화 김성근 김성상 김성심 김성천 김성태 김성호 김성훈 김수정 김승호 김승희 김연기 김연천 김영규 김영근 김영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언 김영은 김영주 김영철 김우열 김우정 김우중 김욱 김원주 김윤수 김은수 김은숙 김은순 김익수 김재홍 김재환 김점섭 김점옥 김정웅 김종민 김종필 김중하 김지만 김지태 김진일 김진표 김진호 김철교 김태훈 김학동 김현준 김혜경 김혜진 김홍섭 김홍주 김효상 김혜린 김희경 남경자 남대일 남승림 남태일 도중수 라창호 류영숙 마은숙 문경민 문규 문석윤 문인창 문춘식 박경춘 박동주 박문구 박민수 박민자 박복애 박봉순 박상홍 박영범 박용준 박윤배 박인자 박일화 박장순 박재규 박재장 박정임 박정희 박종구 박종의 박종현 박주현 박지연 박철규 박초희 박태영 박형숙 배기홍 배승관 배재수 배정호 백상인 백영숙 백요한 백정근 백현주 변철석 변철정 변희중 서순오 서연정 서현희 소은중 손부영 손용기 손은숙 손은정 손창우 송병문 송복순 송선 송시섭 송재기 송준인 송택호 신동진 신성수 신전수 신정인 심재용 안금주 안선옥 안연희 안정란 양병이 양본석 양신욱 양태홍 양홍길 양희정

오동훈 오세란 오창섭 옥성일 원영대 원응삼 유영준 유원욱 유은상 유재원 유정운 유지숙
 유해무 유현숙 윤관중 윤명자 윤성웅 윤양숙 윤영근 윤종호 윤태호 윤형주 이강현 이강호
 이경선 이광주 이금순 이길승 이미순 이민순 이방욱 이병환 이봉원 이석형 이선명 이선정
 이성진 이성호 이수진 이수자(A) 이수자(B) 이승민 이영분 이영희 이요한 이용천 이용훈
 이원배 이윤정 이윤현 이윤희 이은경 이은미 이은섭 이응찬 이재문 이재운 이정석 이집애
 이준원 이진희 이찬호 이창산 이철수 이철진 이택진 이하훈 이해근 이현도 이현숙 이현호
 이훈배 이훈 임봉순 임일택 임정수 임종록 임준권 임태규 임혜진 장기화 장민 장성록 장
 춘복 장해경 전남희 전양미 전종갑 전태수 정득근 정병오 정순자 정애리 정여화 정연실
 정영남 정영호 정영화 정영훈 정운복 정운채 정유진 정은숙 정은창 정익수 정현숙 정현철
 정해자 정화선 조경하 조규봉 조무성 조성산 조용진 조운 조인호 조재영 조제호 조종호
 조준호 조혜미 조흥식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차미영 차성용 최경자 최근영 최근희 최기철
 최미선 최삼욱 최상재 최순화 최욱준 최윤정 최용 최은정 최정운 최중현 최태영 최해석
 최희영 태원우 팽정호 하유수 한귀옥 한규주 한동훈 한상호 한인에 한인철 한지연 허남
 허명산 허주희 홍상희 홍영심 홍인기 홍혜영 황문용 황성규 황인창 황철진

(1만1천) 서종오 **(1만2천)** 남영란 윤영식 **(1만4천)** 송인수
(1만5천) 권명희 권택성 김상인 박상돈 박서현 배정주 신선호 윤영관 장철복 정세열 하
 재승 **(2만)** 강춘례 고정석 구자경 권대식 김광은 김남기 김미숙 김민숙 김병식 김상범
 김성필 김세진 김신근 김신형 김이라 김재영 김지숙 노효석 두준기 민병배 민복기 박광호
 박대훈 박득훈 박명근 박명배 박장수 박판근 배복희 배준환 백명희 서무일 서민우 서임선
 서종순 손영길 손희철 송승혜 신국원 신호근 심순실 심재근 안성도 양낙홍 오덕수 오일호
 우현수 유건호 유영미 윤기정 윤석영 윤선희 윤소영 윤철중 이명자 이미순 이삼민 이수경
 이용환 이우근 이원영 이은숙 이인에 이진오 이현모 임병호 장수영 장영순 정광연 정남운
 정민경 정운형 정은영 조민석 조윤행 최국희 최덕기 최명걸 최성수 최수잔 최영석 최웅호
 최윤선 최해홍 한국희 한송이 함봉식 홍영주 홍인중 **(3만)** 김미화 곽상배 금명자 김경호
 김광수 김성현 김신욱 김철준 리역 박종진 백기숙 손기식 신종현 신현수 엄용환 유성오
 윤혁경 이준균 이희석 임성빈 정기섭 정문희 채홍석 최홍욱 최의혁 최태연 한상호 홍대식
 황규민 황석주 **(3만5천)** 류인복 **(3만6천)** 김나선 **(4만)** 김지영 심혜숙 오혁진 이서현
(5만) 김경래 김명심 김삼한 김성구 김재경 나용근 박종운 박창근 신은정 안미영 원호택
 이만열 이순자 이영규 이의용 이진숙 임경호 임지웅 정영호 정유정 정철도 조성극 최승민
(10만) 김동호 김신영 김인숙 김일수 김충환 손봉호 양세진 원영일 이창원 한기호
(11만) 김진우 **(20만)** 강영안 김구 김대준 박제우 이장규 전재중 **(650만)** 우창덕

교회, 기관 후원금

(1만) 광영교회 서울일본인교회 큰바위교회 **(1만1천)** ESF광주
(2만) 공산교회 빛과소금교회 은평교회 **(3만)** 은평침례교회 **(4만)** 겸신교회
(5만) 경주교회 늘푸른교회 동두천낙원교회 부천평안교회 서울영동교회 권사회 서진교회
 수유중앙교회 수정교회 아현성결교회 지구촌교회 **(8만)** 강변교회
(10만) 고척교회 공사성무교회 금곡교회 남서울교회 다니엘교회 대신감리교회 대주산업
 동부광성교회 두레교회 목민교회 민들레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분당소망교회 분
 당임마누엘교회 빛과생명교회 서울남교회 서현교회 신반포교회 언덕교회 언약교회 연희교
 회 열린문교회 영세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산은혜교회 잠실중앙교회 전주안디옥교회 짐을
 중앙교회 지구촌교회 지비전인터내셔널 천랑교회
(12만) 동서장로교회 **(15만)** 동일교회 **(20만)** 할렐루야교회 화평교회
(30만) 광천교회 남포교회 사랑의교회 **(37만6천)** 놀이미디어교육센터
(40만) (주)마임 남서울은혜교회 성터교회 **(45만)** 팻머스문화선교회
(100만) 서울영동교회 **(200만)** (재)한빛누리 **(750만)** 높은뜻송의교회

기윤실 헌신회원 초청 감사의 밤

Honor & Trust Evening

글_최옥준 | 간사

이 코너는 2007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윤실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며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2월 12일에 진행된 '기윤실 헌신회원 초청의 밤' 행사 후기와 참여해 주셨던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기윤실 초창기 운동과 관련하여 에피소드나 자료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사무처(02-794-6200)로 연락주시면 다음 소식지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화)에 높은뜻승의교회 청어람에서 오랜 기간 저희 기윤실을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을 모시고 Honor & Trust Evening, 헌신회원 초청 감사의 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그 동안 저희 기윤실을 꾸준히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는 기윤실의 비전과 운동 방향을 나누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기윤실과 함께 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만 진행 여건 상 장기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는 손봉호 자문위원장, 우창록 이사장, 강영안, 김동호, 김일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여러 자원활동가와 80여분의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행사 시작 시간 이전에 80%의 회원들이 행사장에 도착하셔서 기윤실에 대한 회원들의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재중 이사의 사회와 20년 동안의 기운실 발자취를 담은 영상으로 시작된 본 행사는 손봉호 자문위원장과 우창록 이사장의 변함없이 기운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와 환영인사, 그리고 김동호 공동대표의 축복의 메시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정직을 통한 신뢰성 증진운동 등 준비되고 있는 구체적인 운동 방향에 대한 양세진 사무총장의 설명과 기운실 운동과 비전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포도송이 메모지에 각자의 의견을 적어 주시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직접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행사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모든 회원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운실은 앞으로 더욱 회원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회원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회원 여러분이 진정한 기운실의 주인으로서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운실 전국대의원총회

일시 : 2007년 2월 26일(월) 오후 5:00~6:30

장소 : 송실대학교 베어드홀 102호

기운실 2020 비전선포식

- 정직을 통한 신뢰성증진운동 -

일시 : 2007년 2월 26일(월) 오후 7:30~9:00

장소 : 송실대학교 베어드홀 5층 대회의실

내용 : 1부) 예배 2부) 비전선포식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기운실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새 사무총장의 임명과 함께 비전과 운동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내·외부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식지를 제작, 발송하는데 사무처 월 예산의 1/4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되고, 장기 사역 간사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중한 회원님들의 정성과 기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재정이 정비되기까지 꼭 보고드려야 할 소식위주로 제작된 소식지를 후원을 하시는 회원님들에 한해 1부씩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실리는 내용은 전체 다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이 원할하셔서 우편으로 꼭 소식지를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소식지 발송 중단을 요청드리며, 주위 분들에게 나누시기 위해 부수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가부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운실이 내부적으로도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요청드립니다.